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과 자동적 점화*

이 재 호[†]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성별 고정관념의 연구는 성별 고정관념의 범주-속성 일치성 효과, 평가-속성 일치성 효과, 및 자아-집단 일치성 효과 등을 보편적인 연구 결과로 보고하였다. 이들 효과는 성별의 지식, 신념 및 기대의 인지적 표상은 제약간의 관계를 안정된 표상으로 구성하려는 균형원리에 근거하여 설명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성별범주의 범주-속성의 일치성 효과보다는 여성-속성의 우위 효과가 관찰되었고, 평가-속성의 일치성 효과보다는 긍정-속성 우위 효과가 관찰되었고, 자아-집단 일치성 효과보다는 성 변인에 따라 비대칭적 효과를 관찰하였다. 성별의 인지적 표상은 제약들의 조합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표상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성별 고정관념의 자기 응집성 모형이 제안될 수 있었다.

주요어 : 성별 범주, 고정관념, 암묵적 표상, 자동 점화, 사회 인지

* 이 연구는 2005년도 신진교수연구지원(KRF-2005-003-H00012)으로 수행되었다.

† 교신저자 : 이재호,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704-701)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

E-mail : leejaeho@kmu.ac.kr

사람이 사물을 보는 동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심적 과정은 사물의 지각적 범주이다. 이 과정은 사물과 사물의 경계를 찾는 과정이다. 만약 그 경계를 찾지 못하면 사물에 대한 지각은 불가능하다. 이런 과정적 원리는 기억의 표상 수준에도 적용된다. ‘사과’와 ‘참외’가 다른 것은 일차적으로 두 대상이 지니는 지각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각 표상은 기억 표상으로 전환되며 이 과정에서 지각적 속성은 추상화 과정을 거쳐 의미적 표상을 구성한다. ‘사과’의 개념은 사과의 속성 의미에 따라 범주화되며 그 의미에 근거한 기억의 표상이 지식(knowledge)으로 표상된다(Rosch, et al., 1976; Smith & Medin, 1981; 이재호와 이정모, 2000). 기억에 범주적으로 표상된 사물의 지각이나 기억의 표상은 새로운 자극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하향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지각하고 표상하는 과정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지각 과정은 사회 범주의 지식에 근거하여 지각적 정보로부터 입력된 정보에 대한 의미적 처리를 하게 된다. 사회적 범주화 과정은 사물의 범주화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일어나며 그 표상도 동일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예; Medin, Lynch, & Solomon, 2000). 즉 ‘사과’와 ‘미라’의 지각과 기억 표상의 과정은 동일한가? 사람은 일반적으로 성별(gender), 연령(age), 인종(race), 직업(profession) 등의 차원으로 범주화된다고 알려졌다(Fiske, 1998; McGarty, 1999). 이 연구에서는 성별범주(gender category)의 기억 표상과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이 범주가 다른 사회 범주에 비해서 가장 기본적인 범주로 알려졌다 때문이다(Greenwald & Banaji, 1995; Greenwald, et al., 2002; Kunda, 2000). 성별 범주의 사회 인지적

표상 체계인 성별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이 암묵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표상되어 있으며 자동적 처리의 과정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관련 연구 결과를 통해서 개관하고자 하였다.

성별 고정관념과 일반 범주의 표상 비교

성별 고정관념은 일상적 사회적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고 유지되는 지식이며 신념이다. 사회인지의 이론은 고정관념은 일종의 도식의 구조이며, 인지일반 지식과 유사하게 범주적으로 표상된다고 보았다. 고정관념은 성별, 인종, 연령, 및 직업 등의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여러 유형들이 있지만, 성별범주가 다른 범주에 비해서 사회적인 의미가 크다고 알려졌다(Kunda, 2000). 서구의 연구에서도 생애의 초기부터 아동들은 인간을 성별로 범주화하고 고정관념을 적용한다는 보고가 있었다(Mackie, et al., 1996; 최현용, 2002). 성별범주가 발달의 초기부터 작용된다는 증거는 성별범주가 매우 정교화된 사회적 지식으로 표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예; Macrae & Bodenhausen, 2000).

성별범주는 생물학적인 속성에 더하여 사회적 혹은 문화적인 속성도 복합적으로 내포하는 범주이다(Macrae, Stangor, & Milne, 1994)¹⁾. Deaux와 Lewis(1984)는 성별관련 특성을 다른

1) 이 연구에서는 성별(gender)의 개념과 성(sex)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성별은 사회 문화적 수준의 범주의 개념으로 사용하였고 성은 생물학적 수준의 범주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예; Kunda, 2000). 그리고 성별 범주의 하위 범주는 여성 혹은 남성으로 기술하였으며 성(혹은 참가자 성)의 하위 범주는 여자 혹은 남자로 기술하였다.

범주들의 특징처럼 정의적 특징(즉, 생물학적 특징), 특성적 특징(즉, 물리적 특징), 및 내면적 특징(즉, 성격적 특징)으로 분류되며, 이들 속성도 위계적 표상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성별 고정관념의 내용은 신체특성과 성격특성을 포함하여, 역할, 직업, 정서적 특징 등의 속성을 다원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Deaux & Lewis, 1984; Deaux & LaFrance, 1998). 이들 주장은 성별범주가 남녀의 이분적 단순 구조이기보다는 표상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복잡한 구성체임을 함의하고 있다. 또한 성별범주의 표상은 성별의 하위 범주인 여성과 남성의 성별 표상이 상당히 중복되기에(Eckes, 1994; Six & Eckes, 1991) 일반 사물범주에 비해서 느슨한 구조로 표상되었을 가능성도 제안되었다(Kunda, 2000; 이재호, 조혜자, 및 방희정, 2001).

성별범주의 복잡성 가정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표상인 성별 고정관념의 처리과정은 의외로 단순하며 자동적이다(Banaji, & Hardin, 1996; Blair & Banaji, 1996; Fazio, et al., 1986). 예를 들어, 성별 고정관념은 어떤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알면 그에 일치되는 속성의 표상을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성별의 범주에 일치하는 정보의 처리를 촉진시키는 일치성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사회범주인 성별범주의 처리와 표상의 특성은 일반범주의 이론적 가정의 연속선상에 있다(예; Medin, Lynch, & Solomon, 2000). 성별범주의 표상적 복잡성과 구조적 느슨함은 일반범주의 특성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그 특성에 대한 이해를 알 수 있다.

일반 범주의 표상: 대상과 행위 범주의 비교

성별범주가 남녀의 두 하위 범주로 구성되고 두 하위 범주에는 다양한 차원의 속성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표상 체계의 입장은 인지 일반의 표상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지 일반의 대표적인 범주 지식으로는 대상(objects)과 행위(actions or events)가 있으며 두 범주 모두 위계성(hierarchy)과 전형성(typicality or centrality)에 따라 표상됨을 가정한다(Murphy & Lassaline, 1997; Smith & Medin, 1981). 예를 들어, 대상범주는 기본 개념(basic level concept)을 중심으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위계적 표상을 구성하며, 각 구성 개념은 속성 관련성에 근거하여 전형성에 따른 표상을 구성하고 있다. 유사하게 행위범주도 장면제목을 중심으로 상위의 각본제목과 하위의 장면활동으로 위계적 표상을 구성하며, 각 위계 구성원은 상황 행위의 관련성에 따라 표상을 구성하고 있다(Barsalou & Sewell, 1985)²⁾.

Barsalou와 Sewell(1985)은 대상범주의 크기 차원이 행위범주 순서 차원에 대비되며, 대상범주의 전형성 차원이 행위범주의 중심성 차원에 비교된다고 보았다. 참가자에게 두 유형의 상위 개념 명을 제시하고 각 차원에 따른 하위 개념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위범주는 중심성에 근거하고 대상범주는 전형성에 근거하여 하위 개념을 생성하게 하였을 때, 행위범주 조건보다는 대상범주 조건에서 생성수가 많았다. 반면에 대상범주는 크기 순서에 근거하고 행위범주는 시간적 순서에 근거하게 하였을 때, 행위범주 조건이 대상범주 조건에 비해서 하위 개념의 생성수가 많았

2) 예를 들어, '과일' 범주는 '사과'와 '키위'를 모두 포함하지만 과일 범주명과의 심적 거리는 매우 다른 것이다. 즉 사과는 과일의 범주와 가까이 표상되지만 키위는 멀게 표상되어 있다. 범주의 구성원이 범주명과의 표상된 심적 거리를 전형성(typicality)이라 한다(Smith & Medin, 1981).

다. 또한 Ross와 Murphy(1999)는 범주(예; ‘음식’)의 하위 개념을 범주로 분류하는 과제를 실시하여 범주의 유형에 따른 표상의 차이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대상범주는 단일한 상위 범주에 일관되게 분류되었지만 행위범주는 여러 범주에 분산되게 분류되었다. 또한 두 유형의 범주는 상위 범주명의 제시 유무에 따라서 유사성 판단의 차이를 보였다. 대상범주는 상위 범주 제시여부가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행위범주는 상위 범주가 제시되는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 조건에 비해서 유사성 판단이 저조하였다.

이재호와 이정모(2000)와 이정모와 이재호(2000)는 점화과제(priming task)³⁾를 사용하여 두 범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점화단어와 목표단어 쌍을 순차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제시하고(예; SOA 300ms)⁴⁾ 목표단어의 어휘판단시간(lexical decision time)⁵⁾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행위범주명을 점화단어로 제시하고 상위범주명의 점화효과에서는 범주유형에

따른 차이-대상범주 혹은 행위범주-는 없었다. 그런데 행위범주의 전형성 효과는 두 범주에서 다르게 관찰되었다. 대상범주는 전형단어가 비전형단어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빨랐지만 행위범주는 반면에 두 단어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상위범주명을 점화단어로 제시하고 행위범주명의 반응시간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대상범주가 행위범주에 비해서 반응시간만 빨랐지만 두 범주 모두 전형성의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두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두 범주는 모두 상위-하위 범주가 위계적으로 표상되었지만, 범주간의 전형성은 대상범주가 행위범주에 비해서 뚜렷하게 작용되었다.

두 범주의 차이는 범주를 구성하는 요소 개념들의 표상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Barsalou, 1999; Medin, Lynch, & Solomon, 2000; Ross & Murphy, 1999). 첫째는 대상범주와 행위범주는 표상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대상범주는 대상 정보만 구성하고 있지만, 행위범주는 행위와 대상을 동시에 구성하고 있다. 둘째는 표상 내용이 다르므로 인해서 표상을 구성하는 구성요소간의 관계도 다르다. 대상범주는 대상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의 표상이 독립적인 표상을 구성하는 특성이 반영되었다. 즉 대상의 범주화는 대상의 속성 유사성 정도에 근거하고 있다(Smith & Medin, 1981). 반면에 행위범주는 행위를 그 표상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간의 관계는 대상의 속성 유사성과는 다른 시간적, 공간적, 인과적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Barsalou, 1999; Zwaan & Radvansky, 1998). 두 범주의 표상 내용의 차이가 범주의 처리과정에도 반영되어 대상범주는 행위범주에 비해서 위계성과 전형성의 효과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언어적 수준에서 기술하면 대상범주는 명사에 해당하며 행위범

- 3) 점화과제(priming task): 이 과제는 점화자극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목표자극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점화자극의 조건을 변화시키면 목표자극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남을 측정한다(이재호와 김성일, 1998).
- 4) SOA(stimulus onset asynchrony)는 점화자극이 제시되는 시점에서부터 목표자극이 제시되는 시점사이의 지연시간이다. SOA는 점화자극과 목표자극의 제시시간을 통제하는 기법이지만 SOA는 처리과정의 민감성을 결정한다. SOA가 0-500ms이면 자동과정을 반영하며, 500ms이상이면 통제과정이 반영되는 것으로 가정한다(예; Neely, 1977).
- 5) 어휘판단과제(lexical decision task): 이 과제는 목표자극이 제시되면 이 자극이 의미있는 단어인지 아니면 의미가 없는 단어인지를 판단하는 과제이다. 자극이 화면에 제시되어 그 자극의 의미 여부를 판단하는데 걸리는 잠재시간을 어휘판단시간이라 한다(이재호와 김성일, 1998).

주는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다(Medin, Lynch, & Solomon, 2000; Rips & Estin, 1998; Ross & Murphy, 1999). 그러면 사회범주인 성별범주의 표상은 일반 범주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별 고정관념의 위계성과 전형성 효과

성별범주의 고정관념적 표상은 남성과 여성의 두 성별이 대비되어 표상되어 있다(예; Fiske, 1998; Kunda, 2000). 일반 대상과 행위의 범주는 '상위-기본-하위' 등의 위계적 표상을 구성하고 있다. 반면에 성별의 범주는 성별을 상위로 하여 여성과 남성의 하위 범주로만 분류되고 두 하위 범주에는 다양한 차원의 속성(attributes)로 구성되어 있다(예; Deaux & Lewis, 1984; Deaux & LaFrance, 1998). 이들 성별범주가 여성과 남성의 범주로 이분화되어 두 범주가 독립적인 표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속성의 표상도 두 하위 범주에 전형성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이재호와 이정모(2000)는 '과일' 범주를 접화한 경우 '사과'가 '키위'보다 명명시간(naming time)⁶⁾이 빠르며, 역으로 '사과'를 접화한 조건이 '키위'를 접화한 조건에 비해서 '과일'의 명명시간이 빠르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범주의 구성원 간의 접화에서도 전형성에 따라서 반응시간의 차이를 관찰하였다.

이재호와 방희정(2003)은 성별 고정관념의 속성의 전형성 변인을 조작하여 단어 쌍을 구성하였다. 참가자에게 접화단어-목표단어의 순

으로 짧은 시간으로 제시하였다(SOA 300ms). 그 결과, '속성-속성' 접화조건에서는 성별 고정관념이나 전형성에 따른 접화효과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대상범주와는 다르며 행위범주에 유사한 결과이다. 대신에 '여성-여성' 조건이 '남성-남성' 조건에 비해서 접화효과가 빠른 결과만 관찰되었다. 이는 여성범주의 속성간의 접화가 남성범주의 속성간의 접화보다 그 효과가 크다는 증거이다. 특히 '여성-남성'이나 '남성-여성' 조건보다도 '여성-여성' 조건의 접화량이 많았다. 일반범주(예; 대상 혹은 행위)에 비해서 사회범주는 남녀범주가 대등하게 이분적으로 표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다른 실험에서는 접화-목표 자극 쌍의 조건을 변화시켜 반복하였다. '속성-속성' 조건 대신에 '속성-범주'(예; '미라') 조건으로 대치하였다. 그 결과, 미약하지만 전형성 효과가 관찰되었다. 즉 전형 속성이 비전형 속성보다 명명시간이 6ms 빨랐다. '속성-범주' 조건에서 전형성 효과가 관찰된 결과는 성별의 하위 범주인 여성과 남성 범주가 위계적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였다(예; Moskowitz & Skurnik, 1999).

이재호, 조혜자, 및 방희정(2001)은 접화-목표의 조건을 좀더 다르게 조작하여 전형성의 효과를 관찰하였다. 이 연구는 이재호와 방희정(2003)의 연구에 비교하면 접화단어와 목표단어의 제시순서를 바꾸었다. 즉 접화단어는 성별이름이었으며(예; '미라') 목표단어는 속성의 전형성이었다(예; '화장하는'). 그 결과, 남녀범주 모두에서 속성의 전형성 효과가 관찰되었다. 성별의 속성이 전형적 조건이 비전형적인 조건에 비해서 명명시간이 빨랐다. 이는 성별의 남녀범주가 하위 범주의 속성에 위계적으로 표상되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범주의 속

6) 명명과제(naming task): 이 과제는 컴퓨터 화면에 목표자극이 제시되면 그 자극을 말소리로 발성하는 과제이다. 명명시간은 컴퓨터 화면에 자극이 제시된 시점에서 발성이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잠재시간이다(이재호와 김성일, 1998).

성들이 상위 범주를 중심으로 전형성에 근거하여 표상되었다는 증거이다. 성별범주의 속성-속성 접화에서는 전형성의 효과가 없었지만 범주-속성 혹은 속성-범주 접화에서는 전형성 효과가 나타났다. 성별범주는 대상범주보다는 행위범주의 표상에 유사하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성별범주는 행위범주에 비해서 접화조건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접화조건이 ‘성별 이름-속성’인 조건이 ‘속성-성별이름’인 조건에 비해서 전형성에 따른 접화효과가 강하게 나

타난 것이다. 또한 전형성 변인이 참가자 성 변인과 상호작용하였다. 전형성 변인의 효과가 남자보다 여자 참가자에서 크게 관찰되었으며 남녀 모두 그 효과가 동성보다 이성에서 관찰되었다(그림 1 참조).

이재호(2006)는 암묵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사용하여 성별범주의 전형성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는 성별속성의 전형성 변인에 따라 단어를 선정하여 참가자에게 제시하고 전형성 변인에 따라 속성을 범주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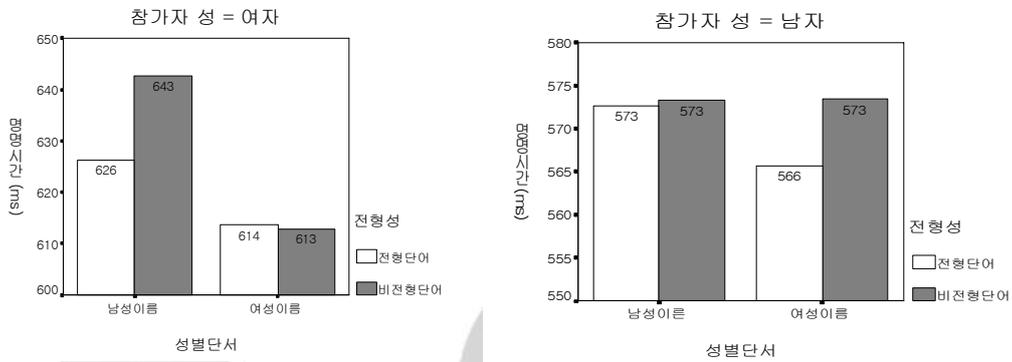


그림 1. 성별 고정관념의 전형성 효과(이재호, 조혜자, 방희정,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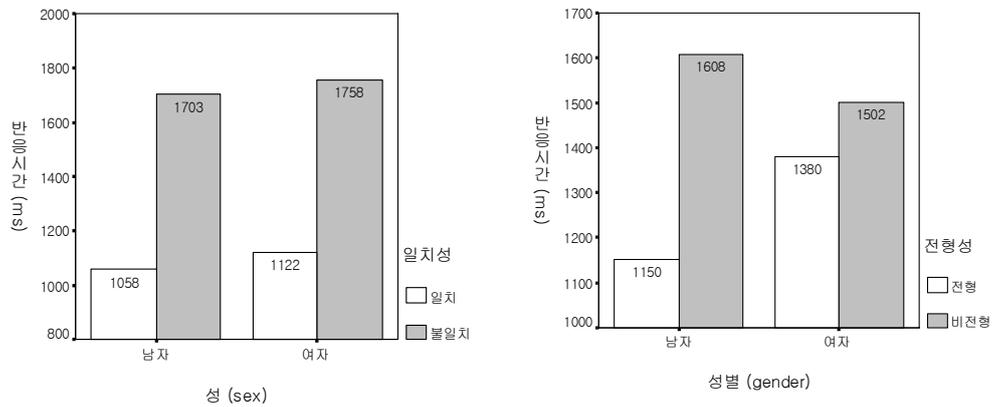


그림 2. 암묵연합과제에서 관찰된 전형성 효과(이재호, 2006)

로 할당하게 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 성이나 성별 고정관념에 관계없이 전형성 효과가 관찰되었다. 즉 전형적인 속성은 비전형적인 속성에 비해서 범주의 할당시간이 빨랐다(그림 2 참조). 점화과제와 암묵연합과제는 모두 성별범주의 암묵적 수준의 표상을 접근하기 위한 과제들이다. 두 과제에서 전형성 효과가 비교적 일관되게 관찰된 것은 성별범주도 일반범주와 같이 전형성이 표상을 구성하게 하는 주요한 제약이 된다는 시사점이 있었다.

그러나 성별범주의 표상은 일반범주의 표상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일반범주의 경우에서 보면, 대상범주와 행위범주는 위계성과 전형성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성별범주는 두 일반범주에 비해서 성별의 위계가 비교적 단순한 특징을 지닌다. 하위 범주의 분류는 다른 사회범주에 비해서도 간략하고 명확하다고 보겠다(예; 연령, 직업). 즉 성별범주는 성별을 상위 범주로 하여 여성과 남성의 두 범주로 구분된다. 둘째, 각 하위 범주는 세부 하위 범주로 구성되기보다는 성별의 속성으로 표상된다. 따라서 일반범주는 대상이나 행위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표상을 설명하였지만 성별범주는 그 보다는 속성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표상을 설명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셋째, 속성은 대부분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성별범주의 지각적 성격적 속성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호도 속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성별 속성은 단순히 인지적 차원의 표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대신에 성별 속성은 선호도나 평가와 같은 감정이나 정서와 연관되는 속성이 함께 표상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성별 고정관념의 자동적 평가

사회범주는 기본적으로 일반범주의 표상 이론에서 출발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범주의 표상이 암묵적이고 자동적으로 처리된다고 가정한다(예; Fiske, 1998; Kunda, 2000). 이는 인지일반의 의미정보가 자동적으로 처리된다는 입장에 비교될 수 있다. 즉 Neely(1977)의 자동처리(automatic processing)와 통제처리(controlled processing)의 이론적 구분에 근거하였다. 자동처리는 처리자의 의식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인지과정이며, 통제처리는 처리자의 의식이 작용되는 인지과정이다. 자동처리는 통제처리에 비해서 처리의 속도가 빠르며 인지자원의 소모도 적다. 예를 들어, ‘의사’라는 단어는 ‘간호사’라는 단어를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키지만, ‘가정부’라는 단어는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키지 않는다. 이는 ‘의사-간호사’는 연합적이고 의미적인 관계로 표상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범주의 의미적 처리에 대한 연구는 평가적 속성의 자동적 처리에서 시작되었다. Fazio, Sanbonmatsu, Powell, 및 Kardes(1986)는 평가적 형용사 단어를 참가자에게 점화단어로 제시한 300ms 지연 후에 목표단어를 제시하고, 목표단어가 긍정 혹은 부정 범주인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였다(즉 SOA 300ms에서 성별판단과제). 그 결과, 점화단어와 목표단어가 평가적 일치조건(예; ‘긍정-긍정’) 불일치조건(예; ‘긍정-부정’)에 비해 판단시간이 빨랐다. 이는 성별 고정관념의 고정관념적인 평가처리(evaluative processing)도 의미처리와 유사하게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는 증거이다. 또한 Bargh, Chaiken, Raymond, 및 Hymes(1996)는 형용사의 평가과제의 자동적 효과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실험조건과 실험과제를 변경하였다. 단어 간 지연시간을 250ms로 통제하고 목표단어의 명명과제를 사용하였다. 이런 실험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의 일치성 효과가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그들은 사회범주의 자동적 평가과정에서 점화자극이 목표자극과 평가가 일치하는 조건이 불일치하는 조건에 비해서 평가반응이 빨라지는 현상을 평가의 일치성 효과(congruency effect)로 명명하였다(Bargh, Chaiken, Raymond, & Hymes, 1996; Fazio, et al., 1986). 특히 Bargh 등(1996)은 평가의 자동처리하는 평가적 태도의 강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Banaji와 Greenwald(1995)는 점화단어를 역치하로 제시한 경우에도 일치성 효과가 일관되게 관찰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평가속성의 일치성 효과는 인지일반의 자동적 의미처리가 사회범주의 활성화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일치성 효과는 평가속성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반명사에도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었다. Banaji와 Hardin(1996)은 점화과제를 사용하여 성별명사의 성별 일치성 효과를 관찰하였다. 그들은 점화단어는 일반명사(예; 'mother')를 사용하였고, 목표단어는 대명사(예; 'he', 'she')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일치성의 자동적 처리를 관찰하기 위해서 점화-목표 조건의 자극 쌍을 SOA 300msec로 조작하였다. 첫째 실험에서는 참가자에게 목표단어인 대명사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판단하게 하였고, 둘째 실험에서는 단순히 대명사이지만 '예' 혹은 '아니오'로 판단하게 하였다. 두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성별범주가 일치하는 조건(예; 'mother'-'she')이 불일치하는 조건(예; 'mother'-'he')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빠르게 관찰된 것이다. 이는 성별범주의 속성이 평가속성이든

일반속성이든 성별범주와 일치하는 조건에서는 성별범주와 성별속성의 일치성이 일관되게 작용한다는 증거인 것이다.

평가의 긍정성 효과

Klauer 등(1997)은 성격 특질(traits)을 사용하여 속성의 일치성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특질을 일치조건(예, '긍정-긍정' 혹은 '부정-부정')과 불일치조건(예, '긍정-부정' 혹은 '부정-긍정')으로 조작하였다. 그리고 참가자에게 점화자극을 제시하고 난 다음 목표자극이 긍정단어인지 부정단어인지를 판단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SOA 0-100ms에서는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었지만 SOA 100ms 조건과 200-1200ms에서는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더욱이 '긍정-긍정' 조건이 '부정-부정' 조건에 비해서 평가의 판단이 빠르게 관찰되었다. 이재호 등(2000)은 Klauer 등(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특질단어 대신에 성별속성의 선호도(preference)를 조작한 단어를 사용하고, 판단과제를 대신하여 명명과제를 적용하여 일치성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긍정-긍정' 조건이 '부정-부정' 조건이나 교차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런데 그 효과가 선행연구에서처럼 짧은 SOA에서만 관찰되었다. 즉 점화-목표 단어 쌍의 긍정성 효과는 SOA 150ms에서만 관찰되었고, SOA 250-1000ms에서 목표단어의 긍정성 효과만 관찰되었다(그림 3 참조).

Klauer 등(1997)과 이재호 등(2000)의 연구를 종합하면, 속성의 긍정성 효과는 SOA 0-150ms 조건에서만 관찰되었다. 이는 긍정속성의 일치성이 부정속성의 일치성에 비해서 그 효과가 크다는 증거를 속성의 유형(성격특질이나 속성의 선호도)에 일반화하여 설명할 수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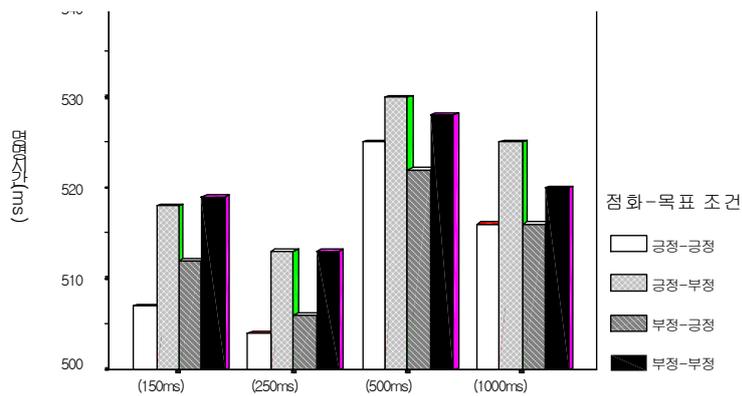


그림 3. 속성의 선호도에 따른 점화효과의 시간경과적 변화(이재호 등, 2000)

다. 더욱이 de Houwer 등(2001)은 역시 정서단어를 사용하여 긍정단어가 부정단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목표단어를 손상시킨(degradation) 조건에서만 일치성 효과를 관찰하였다. 평가 속성의 긍정성 효과는 새로운 암묵적 과제에서도 입증되었다. Rudman, Greenwald, 및 McGhee (2001)는 암묵연합과제를 사용하여 ‘긍정-긍정’의 단어쌍이 ‘부정-부정’의 단어 쌍에 비해서 암묵연합점수가 크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여기에는 참가자 성의 변인도 작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외현적인 과제에서는 여자 참가자는 남자 참가자에 비해서 ‘warmth’에 강한 연합을 보였으며,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power’에 강한 연합을 보였다. 그렇지만 암묵적인 과제인 암묵연합검사에서는 여자와 남자 모두 성별 고정관념의 부정속성보다는 긍정속성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 증거는 속성 평가의 긍정성 효과는 일치성 효과에 대한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정서의 평가 표상이 긍정과 부정의 차원으로 대비되기보다는 긍정 속성은 부정속성에 비해서 의미적 응집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긍정성 효과도

점화-목표 간의 시간경과가 최소한 SOA 250 ms 이내에서만 관찰되었고, 암묵적이고 자동적 과정에 민감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평가의 일치성 효과에는 상반되는 결과이었다(예; Banaji & Hardin, 1996; Bargh, et al., 1996).

성별 고정관념의 여성성 효과

이재호, 조혜자, 및 방희정(2001)은 점화-목표 단어로 성별 속성을 쌍으로 제시하여 성별 고정관념의 일치성 효과를 시간경과적으로 접근하였다. 여성(예; ‘화장하는-눈물있는’)과 남성(예; ‘군대가는-수업있는’)의 성별속성을 각각 20개씩 선별하여 동성과 이성의 단어 짝을 구성하였다(즉 ‘여성-여성’ 조건, ‘남성-남성’ 조건, ‘여성-남성’ 조건, ‘남성-여성’ 조건). 먼저 점화자극을 150ms 제시하고 그 다음은 실험 조건에 따라 목표자극이 100ms, 350ms, 850ms 지연하여 제시하였다. 즉 점화-목표의 자극 쌍의 SOA가 각각 250, 500, 1000ms가 되도록 통제하였다. 만약 성별범주가 여성과 남성으로 대비적으로 범주화되어 있다면 동성간 점화가 이성간 점화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빨라야 한다. 즉 성별범주의 속성의 일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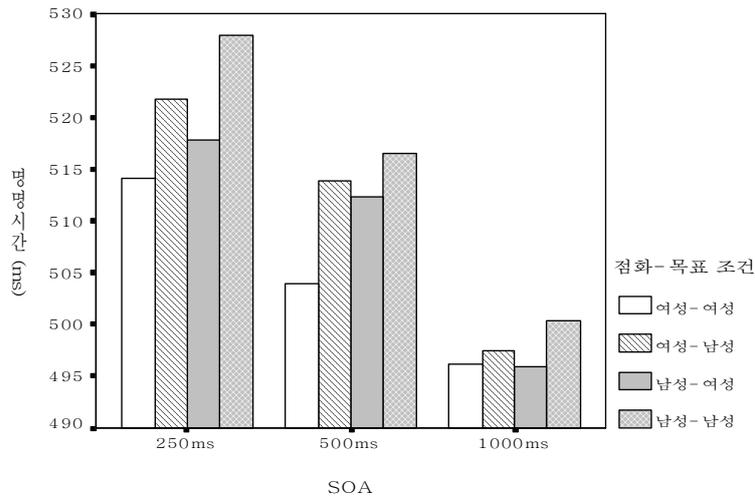


그림 4. 시간경과에 따른 성별 고정관념의 속성간 점화효과(이재호 등, 2000)

효과를 예측하였다. 그런데 결과는 성별범주의 일치성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고, ‘여성-여성’ 조건이 다른 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된 것이다. 특히 그 효과는 SOA 250-500ms인 조건에서만 관찰되었으며, SOA 1000ms에서는 모든 조건간의 차이가 없었다

(그림 4 참조).

이재호(2006)는 점화-목표 조건의 SOA를 650ms로 증가시키고 성별속성도 성별범주와 성별 전형성 변인을 조작하여 이재호 등(2001)의 여성성 효과가 반복되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SOA가 300ms이전이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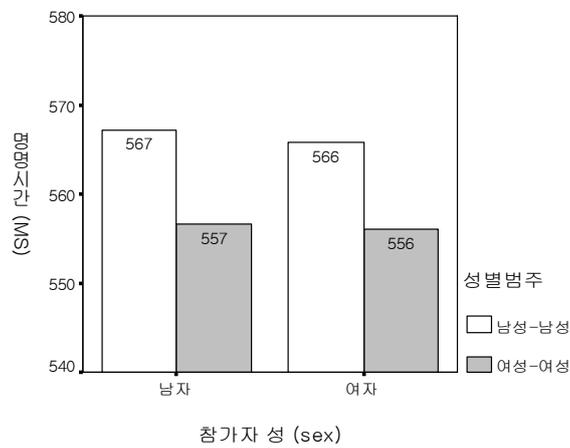


그림 5. 성별 고정관념과 참가자 성에 따른 명명시간의 차이 (이재호, 2004)

동과정의 효과로 보며 SOA 500ms이면 자동과정 통제 처리의 경계 수준이며 그 이상이면 통제 처리의 효과로 본다(예; 이재호와 김성일, 1998). 그 결과, 남녀 참가자 모두 여성-여성 조건이 다른 조건에 비해서 접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다(그림 5 참조).

극단평가의 역접화 효과

평가의 일치성 효과는 속성의 여성 우위 효과나 긍정성 효과에 의해서 대안적인 설명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성별 속성에서는 여성속성이 남성속성에 비해서 의미적으로 응집적이며 평가속성에서는 긍정속성이 부정속성에 비해서 의미적으로 응집적인 표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 될 수 있다. 그러나 Kunda(2000)가 지적하였듯이 사회범주는 인지 일반범주에 비해서 표상의 구조가 불분명하며, 상황이나 개인 제약이 속성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수용하면, 사회범주 특히 성별범주의 표상은 단순히 남녀의 이분적 범주로 표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사회범주의 범주 표상-고정관념적 표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현상이 보고되었다. 평가의 역접화 효과(예; Glaser & Banaji, 1999)가 그것이다.

Glaser와 Banaji(1999)는 자동적 평가의 일치성 효과를 다양한 사회적 범주에 확대 적용하여 음식, 일반 및 인종의 범주에서 평가의 일치성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범주의 개념을 긍정-부정의 평가 차원으로 분류하고, 이들 개념들과 평가 차원을 접화 자극과 목표 자극의 쌍으로 제시하고 제시 조건을 완전 교차하는 방식으로 목표 단어의 명명시간을 측정하였다(SOA 150-300 ms). 그 결과, 음식이 접화단어로 제시되고 인

종단어(예, '흑인' 혹은 '백인')가 목표단어로 제시된 경우에는 평가의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었지만, 일반단어를 접화단어로 제시한 다음 인종단어의 명명시간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얻었다. '부정일반단어-부정흑인단어' 조건이 '긍정일반단어-부정흑인단어' 조건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느리게 나타났다. 즉 평가가 일치 조건(예, '긍정-긍정' 혹은 '부정-부정')이 불일치조건(예, '긍정-부정' 혹은 '부정-긍정')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느려지는 역접화 효과(reverse priming effects)가 관찰되었다. Glaser와 Banaji(1999)는 이러한 역접화 효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접화단어의 극단성 변인을 조작하였다. 즉 극단적 평가단어와 보편적 평가단어를 분리하여 접화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보편평가 단어에서는 일치효과가 관찰되었지만 극단단어에서는 역접화 효과가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역접화효과는 일반적인 의미 관계에서 나타나는 동화적(assimilation) 접화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의미 접화효과는 자극 쌍의 의미적 연합이 강할수록 그 효과가 커지며 약할수록 적어진다. 의미접화의 측면에서는 일반 부정 단어와 흑인 부정단어는 부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일치하는 단어이기에 동화적 접화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부정' 자극쌍이 '부정-긍정' 자극 쌍에 비해서 반응이 빨라야 한다. 그러나 Glaser와 Banaji(1999)의 연구에서는 부정단어나 긍정단어 모두 대비적(contrastive) 접화효과가 관찰되었다. 유사하게 Moskowitz와 Skurnik(1999)는 참가자에게 접화 자극으로 실제 인물사진을 제시한 경우에는 강한 대비 효과를 보였지만 성격 특질을 보여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실제 접화가 특질 접화보다 극단적 대비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증거를 제

시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대비적 점화효과가 대상범주에서도 관찰되었다(예; 이재호, 이정모, 및 전문기, 2002).

요약하면, 일치성의 효과는 범주-속성, 속성-속성, 및 평가-속성의 성별의 고정관념적 표상의 제약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게 되었다. 후속 연구에서 관찰된 긍정성 효과, 여성성 효과, 및 역점화 효과는 전통적인 일치성 효과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현상들이다. 특히 Rudman 등(2001)의 연구처럼 평가의 일치성 효과는 참가자의 성(sex) 변인이 추가되는 조건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즉 여자나 남자는 모두 자신에게 바람직한 속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연합이 강하다는 증거는 단순히 평가적 일치성으로 설명되기는 어렵게 되었다. 참가자의 성 변인이 이들 조건과 상호작용한다면 성별 고정관념의 이론은 자아(self)와 성별범주의 표상의 제약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성별 고정관념과 참가자 성의 상호작용

여자와 남자는 모두 자신이 속한 내집단(즉 동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외집단(즉 이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다. Fazio 등(1986)은 참가자에게 흑백인의 얼굴을 제시하여 인종범주를 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성격속성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백인 참가자는 흑인이 점화되었을 때에는 부정속성이 긍정속성보다 반응보다 빨랐고 흑인 참가자는 그 반응이 역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Perdue 등(1990)은 “we”와 “they”를 점화 자극으로 제시한 다음 55ms 지연 후에 긍정 혹은 부정 속성을 제시하였을 때에도 내집단의

선호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런 인종의 외집단에 대한 내집단의 선호도 효과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 평가속성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인 것이다.

성별 고정관념의 일치성 효과는 내집단 선호도 효과에 의해서 사회 인지의 표상이 일반 인지의 표상에 비해서 정서적 일치성의 효과가 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속한 내집단 일치성이 긍정적 정서를 반영하는 제약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의도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다. 그러나 내집단 선호도 효과 역시 평가의 일치성 효과는 아니지만 집단의 일치성효과임은 분명하다. 그러면 여자는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각각 긍정과 부정 평가를 하는 반면에 남자는 남성과 여성에 각각 긍정과 부정 평가를 하는 것인가? 이 또한 성별 평가와 성 집단을 대칭적으로 보려는 관점인 것이다. 그러나 Lorenzi-Cioldi, Eagly, 및 Stewart(1995)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성을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더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Vonk(2002)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는 외현적 수준과 암묵적 수준에서 대비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표지를 단(marked) 집단이기에 보다 쉽게 성별로 범주화되는 경향이 높다는 주장도 있었고(예; Fiske, 1998), 외현적으로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warmth’에 강한 연합을 보였고, 남자는 여자에 비해 ‘power’에 강한 연합을 보이지만 암묵적으로는 오히려 여자나 남자가 두 표상에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었다(예; Rudman, et al., 2001).

성별 고정관념과 참가자 성의 일치성에 대한 연구는 Banaji와 Hardin(1996)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성별 및 직업 명사(예; ‘mother’

혹은 ‘pilot’)를 접화자극으로 제시한 다음 대명사(예; ‘he’ 혹은 ‘she’)를 목표자극으로 제시하여 대명사의 성별을 판단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접화-목표 단어쌍이 고정관념적으로 일치하는 동성 자극이 이성 자극보다 판단 속도가 빨랐다. 이는 성별이 일치성이 접화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된다. 그런데 접화-목표 자극 쌍의 성별 일치성에 참가자 성이 상호작용하였다. 즉 남자 참가자는 접화단어의 성별에 관계없이 ‘he’를 ‘she’보다 빠르게 반응하였으며, 남성접화를 여성접화보다 빠르게 반응하였다. 대조적으로 여자 참가자는 여성접화에서는 ‘she’를 ‘he’보다 빠르게 반응하였지만, ‘he’에 대한 확인은 여성접화보다 남성접화에서 빨랐다. 이러한 결과가 참가자 성, 접화성별, 및 목표성별의 삼원상호작용을 야기시켰다. 성별의 범주 표상은 참가자 성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이재호, 조혜자, 및 방희정(2001)은 접화자극으로 성별이름(예; ‘미라’)을 제시하고 목표자극으로 성별속성(예; 화장하는’)을 제시하고 목표자극에 대한 명명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

과, 참가자 성과 성별 고정관념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즉 일반적인 반응시간은 남자가 여자보다 빨랐지만, 남자는 성별범주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는 성별범주에 따른 차이를 보인 것이다(그림 6 참조). 여자는 여성범주의 속성에 대한 반응이 남성속성에 대한 반응보다 22ms 빨랐다. 이는 여자는 남자보다 성별범주에 민감할 가능성을 보였다. 남자는 비록 반응시간은 여자보다 빨랐지만 성별범주에 따른 반응시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는 여성범주에 대한 반응이 남성범주에 대한 반응보다 빨랐다. 즉 성별 고정관념이 참가자 성을 고려하면 남녀가 성별범주를 다르게 표상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성별 선호도의 성차

이재호, 조혜자 및 방희정(2001)은 계속된 실험에서 성별 속성의 전형성과 선호도 변인을 조작하여 참가자 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전형성은 참가자의 성차가 없었지만 선호도에서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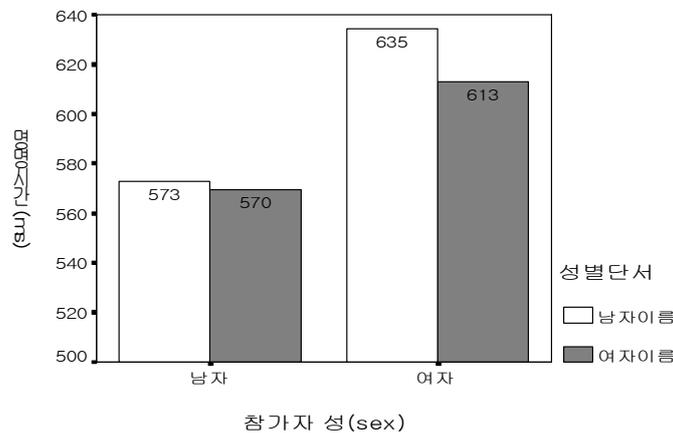


그림 6. 참가자 성과 성별단서의 상호작용 효과 이재호 조혜자 방희정 2001)

녀의 성차가 관찰되었다. 즉 남자와 여자는 공통적으로 부정단어보다는 긍정단어에 대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다. 이는 긍정성 효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남자는 긍정단어와 부정단어의 차이가 23ms인 반면에 여자는 그 차이가 무려 43ms나 되었다. 이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선호도에 표상을 명확하게 이분화할 가능성을 보이는 결과이다. 즉 여자의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속성은 남자에 비해서 더 긍정적으로 표상하며 부정적인 속성은 더 부정적으로 표상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Aidman과 Carroll(2003)은 참가자 성이 성별 선호도와 상호작용한다는 증거를 암묵연합과제를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그들은 참가자 성(sex)과 자아 자존감(self-esteem),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성별 태도(gender attitudes) 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존감('me-pleasant', 'not me-pleasant')은 남녀 간의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태도('male-pleasant', 'female-pleasant')에서는 남자는 두 조건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는 두 조건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남녀 모두 'female-pleasant'가 'male-

pleasant'보다 반응이 빨랐다. 그리고 정체성('male-me', 'female-me')에서는 남자는 둘 간의 차이가 110ms이었지만 여자는 233ms의 차이를 보였다. 남자는 남성과 여성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가 없지만 여자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내집단 일치성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증거를 얻었다.

이재호(2006)는 역시 암묵연합과제를 사용하여 선호도 효과의 참가자 성에 따른 편향효과 크기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남자는 일치조건(남성-긍정, 여성-부정, 1053ms)이 불일치조건(여성-긍정, 남성-부정, 1169ms)보다 반응시간이 115ms 빨랐지만 여자는 일치조건(여성-긍정, 남성-부정, 1059ms)이 불일치조건(남성-긍정, 여성-부정, 1298ms)보다 반응시간이 무려 238ms 빨랐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성별 범부의 선호도에 따른 일치성 효과가 강하게 관찰되었다. 두 조건의 암묵연합점수의 차이는 '여성-긍정' 속성에 있었다. 여자의 '남자-긍정'에 대한 반응은 남자의 '여자-긍정'에 대한 반응보다 무려 129ms 차이를 보였다(그림 7 참조). Aidman과 Carroll(2003)과 이재호(2006)의 두 암묵연합검사 연구는 성별의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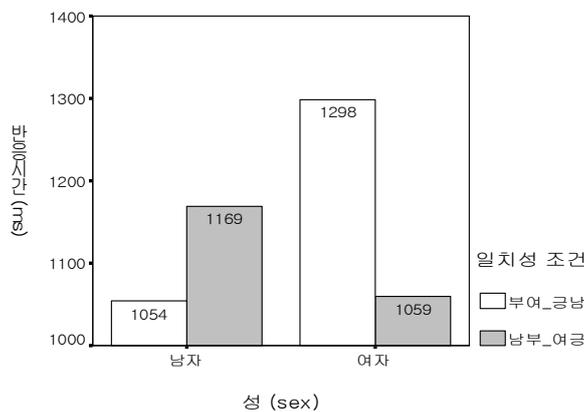


그림 7. 암묵연합과제에서 관찰된 성별 선호도의 성차(이재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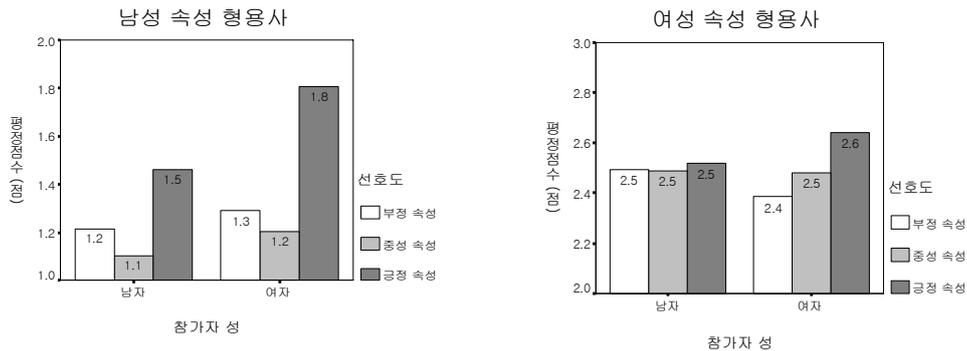


그림 8. 선호도와 성에 따른 성별 고정관념의 평정치 (이정보와 이재호, 2004)⁷⁾

도 속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표상이 남녀에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보였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자아 정체성과 일치하는 내집단 성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반면에 외집단 성별은 부정적인 평가하는 경향이 강함을 함의하였다. 참가자의 성에 따른 평가의 차이는 ‘긍정속성’에 있었다. 남자와 여자는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내외집단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외현적인 수준에서는 성별의 선호도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과연 어떠한가? 이정보와 이재호(2004)는 성별범주의 속성에 대한 표상이 남녀 참가자에 과연 차이가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남녀 속성 47개를 참가자에게 제시한 다음 각 단어에 대한 성별 평정을 3점 척도에서 실시하였다. 1점은 남성, 2점은 중성, 3점은 여성으로 평정하게 하였다. 각 단어는 이미 선호도와 전형성에 대한 평정을 실시한 자료였다. 사전 평정과 실험 평정의 상관은 .95로 매우 높았다. 이는 비록 참가자는 달랐지만 단어의 성별 범주의 판단 일치성은 매우

높았다고 보겠다. 이 연구의 관심은 어떤 단어에서 참가자 성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는지에 있었다. 참가자 성이 성별 고정관념에 동일한 표상을 구성하고 있다면 성별 전형성에 따른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 결과, 여자와 남자 참가자는 성별 속성에 대한 평정치에서 반응의 차이를 보였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속성 선호도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 그림 7에서 보면 남자는 남성이나 여성 속성에 대해서 성별 선호도의 차이가 적었지만 여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긍정적인 속성은 남자에 비해서 더 여성 속성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여성 속성은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선호도에 따라 긍정은 더 여성적으로 평가하며 부정은 상대적으로 더 남성적으로 평가하였다. 남성 속성은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긍정 속성만 더 여성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외현적 수준에서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선호도에 따른 긍정과 부정의 편향이 크다는 증거이다(예; 인종범주: Wittenbrink, Judd, & Park, 1997).

요약하면, 성별 고정관념은 성에 대한 인지 표상이다. 참가자 성에 따라 남녀의 성별표상

7) 이 결과는 성별범주의 참가자 성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서 실험재료를 재분석한 것이다.

이 동일하게 표상되었다면 참가자 성과 성별 범주는 일치성 효과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두 제약이 상호작용을 하였다(Aidman & Carroll, 2003; Carpenter, 2000; 이재호, 등, 2001; 2003; 2006). 첫째는 성별 고정관념의 내집단과 외집단의 일치성 효과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크게 관찰되었다. 둘째는 여자는 속성의 성별에 관계없이 긍정속성에 대한 편향이 남자보다 크다. 셋째는 남자나 여자나 성에 관계없이 여성성 효과와 긍정성 효과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맺는말: 자기-응집성 모형

전통적인 사회인지에서 강조되었던 일치(consistency)와 균형(congruency) 원리를 통합하는 이론적 모형이 제안되었다(예: The balanced identity design, Greenwald, et al., 2002). 그들의 이론은 여자 참가자가 암묵적으로는 ‘여성-강함’의 연합이 ‘남성-강함’의 연합만큼 강하다는 Rudman 등(2001)의 연구 결과로부터 시발되었다. 여자의 암묵적 ‘여성-강함’ 연합은 여자의 자존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 인지는 ‘집단(집단 정체성)-자기(자존감)-속성(집단 속성)’의 세 요인이 균형적으로 표상될 것을 가정하였다. 즉 그 연합은 ‘자기-여성’, ‘자기-긍정’, 그리고 ‘강함-긍정’ 연합의 인지적인 산물로 보았다. 특히 이 이론은 암묵적인 수준의 측정과 외현적 수준의 측정이 해리된다는 전제를 지니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의 표상이 일반인지의 표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였고, 참가자 성 변인을 추가한 경우에는 사회인지의 표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이들 문제는 사회인지에서 전통적으로 가정되었던 일치성 효과나 균형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Greenwald 등(2002)에서는,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에 대한 집단 정체성에 성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고, 자존심은 항상 자신이 긍정적 표상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며, 집단속성도 따라서 긍정적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모형은 참가자 성을 고려하지 않은 짧은 SOA의 긍정성 효과(이재호 등, 2000, 2001, 2006)는 설명될 수 있었지만, 참가자 성에 관계없이 관찰된 여성성 효과(이재호 등, 2001; 2003; 2006)는 설명되기가 어렵다. 즉 남자나 여자나 모두 여성속성에 대한 점화효과가 다른 조건에 비해서 크게 관찰된 것은 집단과 자기의 일치성 효과로는 예측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별의 남녀가 구분되었듯이 참가자의 성 변인 또한 중요한 변인 것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별이 자신의 성별 고정관념의 범주적 속성의 활성화를 결정한다. 개인의 자존감이 성별 고정관념의 표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신과 집단이 일치하는 조건과 바람직한 속성으로 표상하기를 원한다. 이는 자신의 바람직한 속성을 집단의 속성으로 표상하려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차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긍정적 속성에 대한 편향이 강하였다(이정모와 이재호, 2004). 부정적 속성은 남성적인 것으로 긍정적인 속성은 여성적인 속성으로 표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긍정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성별 고정관념의 구분이 약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 정체성과 일치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예; Aidman & Carroll, 2003; Greenwald, et al., 2002; Rudman, et al., 2001).

이들 결과를 수용하면, 즉 성별집단의 성차를 고려하면 ‘집단-자기-속성’의 표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여자는 ‘여성-강함-긍정’의 표상을 구성하며 남자는 ‘남자-강함-긍정’의 표상을 구성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성에 표상은 어떠한가?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남자는 자신과 집단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긍정성과 여성성 효과가 표상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자는 ‘남성-강함-긍정’의 표상을 구성할 수 없지만 남자는 ‘여성-강함-긍정’을 표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다.

사회인지의 표상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일반범주의 위계성과 전형성의 효과를 성별범주에서도 관찰하고자 하였다. 일반범주에 비해서 성별범주는 위계성 변인의 효과는 미약하지만 관찰되었다. 반면에 일반범주의 전형성 효과도 관찰되었다(예; 이재호와 방희정, 2003). 특히 이 효과는 점화-목표 조건에 따라서 성별이름 같은 범주의 사례를 제시하였을 경우에 관찰되었고, 남자 참가자보다는 여자 참가자에게서 크게 관찰되었다(이재호 등, 2001; 2003). 이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성별범주의 대비적 표상, 성별 속성의 전형성 표상, 성별 집단에 따른 범주 일치성 표상이 명확하게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성별범주의 표상이 자신의 자존심의 정도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여자는 그 범주의 구분과 정체성이 표상에 중요하지만 남자는 범주의 구분보다는 긍정속성이나 여성속성 자체에 대한 표상의 비중이 크다고 보겠다. 즉 자신과 집단과 속성의 일치성보다는 자신과 자신이 추구하는 표

상과 속성 정보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자기-응집성 표상(self-coherence model)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성별범주에 한정된 일련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선행된 사회인지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재해석하여 보았다. 물론 사회인지 일반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별이외에도 인종, 연령, 직업, 및 지역 범주에 대한 표상과 접화에 대한 연구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범주는 사회나 문화적 맥락에서 구성된다고 본다면 이 연구가 서구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문화적 제약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문화적 모델을 적용하여 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일반범주를 포함하여 사회범주의 고정관념적 표상이 자동적이며 암묵적으로 작동한다는 맥락에서 실시되었지만 암묵적 수준의 표상과 외현적 수준의 표상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조망할 모델의 필요성 또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재호 (2006).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 IAT에 관찰된 참가자 성에 따른 선호도와 정체성 차이. *인지과학*, (심사중)
- 이재호, 김성일 (1998). 언어 이해과정의 연구 방법. 이정모, 이재호 (편), *인지심리학의 제 문제 II: 언어와 인지* (155-182쪽). 서울: 학지사.
- 이재호, 방희정 (2003).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 성별의 속성 전형성과 집단 일치성의 접화효과. *인지과학*, 14, 37-48.
- 이재호, 오경기, 김미라, 조금호 (2000). 성별

- 선호도의 긍정-부정성이 자동적 평가에 미치는 효과.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24-225.
- 이재호, 이정모 (2000). 개념 지식의 유형에 따른 표상 차이: 범주와 각본의 위계성과 전형성 비교. *인지과학*, 11, 73-81.
- 이재호, 이정모, 전문기 (2002). 개념 유형에 따른 전형성의 비대칭적 접화효과: 대상 범주와 행위각본의 차이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14, 15-32.
- 이재호, 조궁호, 오경기, 김미라 (2001). 사회적 범주의 암묵적 표상 구조: 성별 고정관념의 비대칭적 접화효과. *인지과학*, 12, 43-54.
- 이재호, 조혜자, 방희정 (2001).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구조: 성별단서, 범주전형성 및 성별선호도의 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 49-67.
- 이정모, 이재호 (2000). 대상과 행위의 개념적 표상 차이: 명명과제의 접화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12, 201-214.
- 최현용 (2002). 단어숙성에 따른 성 고정관념의 자동적 처리과정: 연령에 따라서. 미발간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dman, V. A., & Carroll, S. M. (2003). Implicit individual differences: Relationships between implicit self-esteem, gender identity, gender attitud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7, 19-37.
- Banaji, M. R., & Greenwald, A. G. (1995). Implicit gender stereotyping in judgments of fa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81-198.
- Banaji, M., & Hardin, C. (1996). Automatic stereotyping. *Psychological Science*, 7, 136-141.
- Bargh, J. A., Chaiken, S., Raymond, P., & Hymes, C. (1996). The automatic evaluation effect: Unconditional automatic attitude activation with a pronunciation task.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 104-128.
- Barsalou, L. W. (1999). Perceptual symbol systems. *Behavioral Brain Science*, 22, 577-609.
- Barsalou, L. W., & Sewell, D. R. (1985). Constrasting the representation of scripts and categorie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4, 646-665.
- Blair, I. V. & Banaji, M. R. (1996).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 stereotype pri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142-1163.
- De Houwer, J., Hermans, D., & Spruyt, A. (2001). Affective priming of pronunciation reponses: Effects of target degrad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85-91.
- Deaux, K. & LaFrance, M.(1998). Gender.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pp. 357-411). NY: McGraw Hill.
- Deaux, K., & Lewis, L. L. (1984).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Inter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and gender lab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91-1004.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Eckes, T. (1994). Features of men, features of women: Assessing stereotypic beliefs about gender subtypes. *British Journal of Social*

- Psychology*, 33, 107-123.
- Fazio, R. H., Sanbonmatsu, D. M., Powell, M. C., & Kardes F. R. (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 Fiske, S.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pp. 357-411). NY: McGrawHill.
- Glaser, J., & Banaji, M. R. (1999). When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 Reverse Priming in automatic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669-687.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G., Banaji, M. R., Rudman, L. A., Farnham, S. D., Nosek, B. A., & Mellott, D. S. (2002). An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 3-25.
- Greenwald, A. G., Draine, S. C., & Abrams, R. L. (1996). Three cognitive markers of unconscious semantic activation. *Science*, 273, 1699-1702.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Keenan, J., Potts, G., Golding, J., & Jennings, T. (1990). Which elaborative inferences are drawn during reading? A question of methodologies. In D. Balota, G. Flores d'Arcais, & K. Rayner (Eds.), *Comprehension processes in reading*. Hillsdale, NJ: Erlbaum.
- Klauer, K. C., Rosnagel, C., & Musch, J. (1997). List-context effects in evaluative prim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3, 246-255.
- Kunda, Z. (2000). *Social cognition: Making sense of people*. Cambridge, Mass.: MIT Press.
- Lorenzi-Cioldi, F., Eagly, A., & Stewart, T. (1995). Homogeneity of gender groups in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193-217.
- Mackie, D., Hamilton, D., Susskind, J., & Rosselli, F. (1996). Social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stereotype formation. In C. Macrae, C. Stangor, & M. Hewstone (Eds.),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pp. 41-78). NY: Guilford.
- Macrae, C. N., & Bodenhausen, G. V. (2000). Social cognition: Thinking categorically about oth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93-120.
- Macrae, C. N., Bodenhausen, G. V., Milne, A. B., Thorn, T. M. J., & Castelli, L. (1997). On the activating social stereotypes: The moderating role of processing objectiv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 471-489.
- Macrae, C. N., Stangor, C., & Milne, A. B. (1994). Activating social stereotypes: A functional analysi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370-389.
- McGarty, C. (1999). *Categorization in social psych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 Medin, D. L., Lynch, E. B., & Solomon, K. O.

- (2000). Are there kinds of concep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121-147.
- Moskowitz, G. B., & Skurnik, I. W. (1999). Contrast effects as determined by the type of prime: Trait versus exemplar primes initiate processing strategies that differ in how accessible constructs are used.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6, 911-927
- Murphy, G. L., & Lassaline, M. E. (1997). Hierarchical structure in concepts and the basic level of categorization (pp. 93-131). In K. Lamberts, & D. Shanks (Eds.), *Knowledge, concepts, and categories*. Cambridge, Mass.: MIT Press.
- Musch, J., & Klauer, K. C. (2003). *The psychology of evaluation*. Hillsdale, NJ: Erlbaum.
- Neely, J. H. (1977). Semantic priming and retrieval from lexical memory: Roles of inhibitionless spreading activation and limited capacity atten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6, 225-254.
- Perdue, C., Dovidio, J., Gurtman, M., & Taylor, R. (1990). Us and them: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process of inter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475-486.
- Rips, L. J., & Estin, P. A. (1998). Components of objects and event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9, 309-330.
- Rosch, E., Mervis, C., Gray, W., Johnson, D., & Boyes-Braem, P. (1976). Basic objects in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8, 382-439.
- Ross, B., & Murphy, G. L. (1999). Food for thought: Cross-classification and category organization in a complex real-world domain. *Cognitive Psychology*, 38, 495-553.
- Rudman, L. Greenwald, A., & McGhee, D. (2001). Implicit self-concept and evaluative implicit gender stereotypes: Self and ingroup share desirable trait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164-1178.
- Six, B., & Eckes, T. (1991). A closer look at the complex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Sex Roles*, 24, 57-71.
- Smith, E. E., & Medin, D. L. (1981). *Categories and concepts*.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Vonk, R. (2002). Effects of stereotypes on attitude inference: Outgroups are black and white, ingroups are shaded.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 157-167.
- Wittenbrink, W., Judd, C., & Park, B. (1997). Evidence for racial prejudice at the implicit level and its relationship with questionnaire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62-274.
- Zwaan, R. A., & Radvansky, G. A. (1998). Situation models in language comprehension and memory. *Psychological Bulletin*, 123, 162-185.
- 1 차원고집수: 2006. 2. 12.
심사통과집수: 2006. 3. 6.
최종원고집수: 2006. 3. 15.

Implicit Representation and Automatic Priming for Gender Stereotype

Jae-Ho Lee

Keimyung University

Previous studies of gender stereotype suggested that the effects of category-attribute consistency, evaluation consistency, and self-group consistency were generally observed. These effects were based on the consistency principle or congruency principle for explaining the knowledge, belief, and expectation of gender. But recent studies suggest the effects of female superiority, positive superiority, and asymmetric self-group consistency were observed. These results were more complex when add sex variable.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within the self-coherence model of gender stereotype.

key words : Gender Category, Stereotype, Implicit Representation, Automatic Priming, Social Cognition